

2023-04-17 (2023-14호)

04월 17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박스권 복귀한 환율... 中 리오프닝 효과 주목

서울, 4월1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가늠하는 가운데 역내 수급 상황 따라 레인지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80-1,320원이다.

지난주 단기 박스권 상단을 잠시 이탈하며 상승 압력을 높였던 환율은 주 후반 급락해 다시 박스권 안으로 돌아왔다.

금주도 외국인 배당 역송금 수급 관련 경계감이 이어지겠지만, 규모가 줄면서 시장 재료 영향력은 이전보다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가 추산한 이번 주 외인 배당 몫은 1.3조원 규모다.

그럼에도 역내 타이트한 수급 여건 탓에 환율은 하방 경직성을 유지한 채 틈틈이 상승 시도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주 후반 나흘 20일 기준 무역수지를 통해 수급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한편, 금주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가늠할 만한 중국 핵심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 1분기 GDP를 비롯해 3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결과 등이 나온다. 또한, 중국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를 발표한다.

이강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14일 중국 경제가 올해 5%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리오프닝 기대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위안화 반응 따라 원화는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 회의를 앞두고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의 변동성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 달러/원은 위안화와 수급 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예나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4월17일(월)

- ⊙ 한국은행: 중국 리오프닝의 국내 경제 파급영향 점검(BOK이슈노트 2023-11) (12: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및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12:00)
- ⊙ 금융위원회: 제2차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개최 (14:00)
- ⊙ 기획재정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14:00)

4월18일(화)

- ⊙ 금융감독원: '23년 1분기 ABS 등록발행 실적 (0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14:00)

4월19일(수)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14:00)

4월20일(목)

- ⊙ 금융위원회: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11:00)
- ⊙ 한국은행: 2022년 결제통화별 수출입(확정) (12:00)

4월21일(금)

- ⊙ 관세청: 4.1~20일 수출입 현황
- ⊙ 한국은행: 2023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 (06:00)
- ⊙ 금융감독원: '23.3월 기업의 직접금융조달실적 (0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08: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4월17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4월17일	21: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4월	-15.00	-24.60
4월17일	23: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4월		44
4월18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YTD)YY	1~3월		5.5%
4월18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3월		2.4%
4월18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3월		3.5%
4월18일	11:00	중국	GDP YY	1분기		2.9%
4월18일	21:30	미국	건축허가건수	3월		1.550M
4월18일	21:30	미국	주택착공건수	3월	1.400M	1.450M
4월19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제조업지수	4월		-3
4월19일	08:00	일본	로이터 단칸 비제조업지수	4월		21
4월19일	13:30	일본	산업생산 수정치 MM	2월		4.5%
4월19일	17:00	유로존	경상수지	2월		17.000B
4월19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4월14일 주간		229.5
4월20일	08:50	일본	수출 YY	3월		6.5%
4월20일	08:50	일본	수입 YY	3월		8.3%
4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Y	4월		3.65%
4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Y	4월		4.30%
4월20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월10일 주간		239k
4월20일	23:00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	4월	-18.0	-19.2
4월20일	23:00	미국	기존주택판매	3월	4.49M	4.58M
4월21일	08:30	일본	CPI	3월		3.3%
4월21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4월		49.2
4월21일	17:00	유로존	S&P 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4월	48.0	47.3
4월21일	17:00	유로존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4월	54.6	55.0
4월21일	17:00	유로존	S&P 글로벌 종합 PMI 잠정치	4월	54.0	53.7
4월21일	22:45	미국	S&P 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4월		49.2
4월21일	22:45	미국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4월		52.6
4월21일	22:45	미국	S&P 글로벌 종합 PMI 잠정치	4월		52.3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4월17일 (월)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외교협회서 연설 (18일 오전 0시)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리치몬드기업경제협회 연설 (18일 오전 1시)

4월18일(화)

- ⊙ 호주 중앙은행, 4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개 (오전 10시30분)
- ⊙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프사로스 금융시장정책센터에서 연설 (19일 오전 2시)

4월19일(수)

- ⊙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마켓플레이스 인터뷰 (20일 오전 6시30분)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뉴욕대 머니마켓티어 연설 (20일 오전 8시)

4월20일(목)

- ⊙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글로벌인디펜던스센터서 연설 (21일 오전 1시)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에이크론 라운드테이블 경제 및 정책 전망 관련 연설 (21일 오전 1시20분)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이스턴플로리다주립대 지역 및 국가 경제 관련 토론 참석 (21일 오전 6시)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사무엘 켈 앤드 로버트 루리 부동산센터 총회에서 경제 전망 관련 연설 (21일 오전 8시45분)

4월21일(금)

- ⊙ 리사 쿡 연준 이사, 캐롤 라운드 키노트 스피치 행사에서 연설 (22일 오전 5시35분)

▶ 금주 세계 5대 이슈

⊙ 美 어닝시즌 본격화

미국 기업 어닝시즌이 본격화되지만 지역 은행 위기와 공격적인 통화정책 긴축으로 전망은 어둡다.

이번 주에는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은행들과 더불어 존슨앤드존슨, 넷플릭스,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한다.

지난 7일 기준 레피니티브 I/B/E/S 데이터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S&P500 기업들의 1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4분기에도 이익이 감소해, 전망대로라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두 분기 연속 실적 감소가 된다.

그러나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실적이 예상보다 좋거나 가이드언스가 긍정적인 경우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S&P500지수는 올해 들어 약 6.5% 상승했다.

⊙ 주요국 PMI

오는 21일 발표될 주요국 4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최근 은행권 혼란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금융권 문제로 인해 세계 경제가 전망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보다는 부진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경고했다.

트레이더들은 하반기 미국 경제가 대대적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고, 연방준비제도가 연내에 금리를 인하하리라고 베팅하고 있다.

최근 PMI는 유럽의 경제 활동이 비교적 잘 버티고 있음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그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유럽 블루칩 주가지수는 22년 만의 최고치 부근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 中 경제지표와 대출금리

이번 주 중국에서는 1분기 GDP, 3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발표된다.

국내 인플레이션은 완만하고,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신용 성장세는 견실하다. 그러나 은행들은 대출을 강요받고 있으며, 수출 증가세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등 비관적으로 볼 만한 요소들이 있다.

반대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중국인민은행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이번 주 추가 부양 조치가 이뤄지리라고 기대한다.

소규모 지역 은행들이 이미 예금 금리를 인하한 것은 당국이 대출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길 바라는지에 대한 단서일 수 있다.

⊙ 英 물가 상승세 꺾일까

이번 주 영국에서는 2월 고용과 3월 인플레이션 등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발표된다.

2월 물가 상승률은 외식업체들의 식음료 가격 인상에 예상과 달리 10.4%로 가속화해, 3월 금리 인상

전망을 강화한 바 있다.

시장은 최소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1977년 이후 최고치인 18%에 달하는 등 끈질긴 인플레이션이 최종금리에 도달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다.

다만 슈퍼마켓 운영 업체 테스코가 우유 가격을 202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인하했는데, 이는 영란은행의 골칫거리였던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이리라는 신호일 수 있다.

◎ G7 장관회의

다음 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말 삿포로에서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 회의가 열렸다.

회의 후 발표된 코뮈니케에 따르면 G7 국가들은 청정 에너지원로의 전환과 화석 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에 따르면 16일부터 사흘간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등으로 최근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중국에 대한 "공통되고 일치된" 접근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칼럼)-역대급 팩트 오류로 체면 구긴 이창용 한은 총재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월12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일부 언급과 관련해 시장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단기금리, 자금시장과 관련해 내놓은 언급 중 시장에서 통용되는 상식과 어긋나는 부분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안채 3개월 금리 하락이 통화정책 베팅(?)

이날 기자간담회의 하이라이트가 이 총재의 '시장 과도 반응' 발언이었다는 데 대해 이견을 다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이 총재는 "올해 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 기대가 시장에 많이 형성됐는데 금통위원들은 그런 기대가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금융 부문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돼 시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과도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금통위원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국내 물가 경로나 미국 통화긴축 종료 시점, 대내외 신용 이벤트의 진행 방향 등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상황에서 이 총재가 금통위의 정책 판단과 시장의 기대 수준간 균형을 맞추려 시도하리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긴 했다.

하지만 시장참가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건 그 이후 발언이다.

이 총재는 "시장은 경기가 한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낮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3년물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90일물 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90일물(91일물 금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 등 단기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데 대해 "금년 말에는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를 낮출 거라는 기대가 완전히 자리잡고 있다"라며 "저는 단기금리가 이렇게 내려간 데에는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지난 다음에 연준이 피벗(정책기조 전환)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금리를 빨리 낮출 거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우리 국채 시장에도 많이 들어온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또 연준이 피벗하고 국내 경기도 나빠지니 한국은행도 빨리 피벗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같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1년물 금리를 예로 들며 시장의 과도한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을 언급했다면 누구나 수긍했을 것이다. 하지만 90일물 금리가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시장에서 통안채 3개월물은 통상 자금운용 관점에서 접근하는 구간이다. 통화정책 베팅 관점으로 접근하는 이는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최근 통안채 3개월물 금리는 왜 떨어진 걸까? 11일 종가 기준 통안채 3개월물 금리는 3.38%로 분명히 기준금리인 3.5%를 하회하고 있다.

최근 통안채 3개월물 금리가 하락한 데에는 외국인 재정거래 수요가 늘어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그리고 이 거래는 원화 통안채 금리와 통화스왑(CRS) 금리간에 일정 마진이 발생할 때 기계적으로 발생한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의 신용위험과 달러자금 롤오버에 대한 유동성 위험을 분담하긴 하지만 큰 틀에선 무위험 차익거래로 분류된다. 통화정책 베팅과는 거리가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바로 레포금리다. 자금시장의 조달금리로 통하는 레포금리는 최근 3.2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자금시장의 수요와 공급간 균형점에서 결정되는 레포금리가 3.25%이니 머니마켓펀드(MMF)든 어디든 현금으로 묵히기보다 조달금리 위에서 움직이는 채권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 레포거래를 이용하려는 기관들 입장에서도 담보용 채권 확보를 위해 통안채 3개월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레포금리는 왜 기준금리보다 낮은가? 한은이 자금시장을 여유롭게 운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레고랜드발 신용 위축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은이 시중 자금을 여유롭게 운용해 온 건 주지의 사실이다. 한은의 이같은 공개시장운용이 금융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통화정책의 물가안정 중시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온 것도 이 총재다.

이 총재가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은 내부에선 최근 통안채 3개월물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한 이유를 분석한 보고서가 회람됐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은 시장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구나 한은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서베이에서도 시장의 3개월 이내 금리인하 기대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할 때 "통화정책 변경 기대감도 크지 않은데 최근의 90일물 금리 움직임은 과하다"는 지적은 논리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만 "연준과 금통위의 피벗 기대감 때문에 나타난 최근 90일물 금리 움직임은 과하다"는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한은 차입과 단기금리 관계 없다(?)

이 총재가 자금시장 관련한 팩트를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또 한군데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한국은행 차입 관련 부분이다. 이날 한 기자는 최근 단기금리가 낮아진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가 굉장히 커진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총재는 다소 뜬금없는 답변을 내놓는다.

이 총재는 "지금 한은 차입금 규모를 보면 법적으로 40조까지 정부가 빌릴 수 있고 이것은 정부가 갖고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데 이게 40조를 찍었다가 줄어들었다 한다"며 "이것이 만일 단기채권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금리가) 하루 이틀이면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 총재는 "아마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세수가 덜 견혀서 기본적으로 채권 발행량이 미래에 늘어날 거니까 그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단기 금리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친절하지만 다소 혼란스러운 발언을 더했다.

기본적으로 한은 차입이 단기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총재의 판단을 짚고 싶다.

세입과 세출에 미스매칭이 날 때 기재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은 차입이고 또 하나는 재정증권 발행이다. 기재부 입장에서 한은 차입이 너무 많다 싶으면 재정증권 발행을 늘리면 되고 이전에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세수 급감으로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최대치로 끌어 쓴 올해까진 현재 1회차 기준(월 4회) 1조 원씩 하는 재정증권 발행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기재부가 2월에 재정증권 발행을 2조~2.5조원으로 늘렸다면 3월 말까지 한은 차입을 10조원은 덜 했을 것이다.

기재부가 한은 차입을 줄이고 재정증권 발행 물량을 늘렸다면 재정거래 수요를 분산시키는 등의 효과를 내면서 단기금리를 지금보다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하나의 경로다.

여기서 다시 한은의 공개시장운영 문제가 나온다. 기재부의 한은 차입이 늘어난 만큼 한은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자금을 흡수한다.

하지만 한은이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동안채 발행보다 RP 매각이나 통화안정계정 입찰을 선호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부분이다. 최근 단기금리 하락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한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부분이다.

이날 이 총재가 어떤 의도로 상기 발언을 했는지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은에선 이 총재가 다소 급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중요한 맥락을 빼놓아 혼선을 빚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거시경제 전문가인 이 총재가 일부 분야에 대해선 아직 공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한은 총재의 금통위 기자회견은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통화당국의 입장을 피력하는 자리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논리의 기반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팩트 부분에서 혼선이 초래된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 · 국제 금융시장 변동폭

- 외환: 원화 역내 +1.37%, 유로화 +0.95%, 엔화 -1.23%, 위안화 역내 +0.09%, 달러지수 -0.57%
- 국내 주가: 코스피 +3.26%, 코스닥 +2.70%
- 미국 주가: 다우존스 +1.20%, 나스닥 +0.29%, S&P500 +0.79%, 러셀2000 +1.52%
- 국내 국고채(레피니티브 호가): 3년 -2.5 bps, 10년 -0.4 bps, 최종 3/10년 스프레드 +6.9 bps
- 미국 국채: 2년 +13.1 bps, 10년 +13.9 bps, 최종 2/10년 스프레드 -58.1 bps
- 원자재: 원유 선물(WTI) +2.26%, 금 선물 -0.25%, 레피니티브/코어커머디티CRB지수 +1.67%